

소설부문 가작

『그래도 학생들이 대모를 했으면 이렇게라도 됐겠지. 안 그래도 이런 부자 세례도 못 봤겠지 누가 아요!』
고모는 블린 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된다는 생각은 벗힐 수 없다.

『그래도 사실이 다 내랑 같지 않은 것이다. 써려 적일 놈들이 편을 치고 살지만 고깃들도 몇 쪽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나 애미 생각해서라도 하지 말아!』

천심으로 하는 말이었다.

긴 털이 늘어뜨린 벽시계가 새로 한지를 치자 모두들 일어섰다. 풍선이 머물던 세제에 보태라고 가져온 쌈그릇에 이것저것 음식을 담아 안겨주고는 큰 깅기까지 나서서 배웅을 했다.

모자(母子)는 한시간 남짓 힘껏 짐을 대충 해 놓고서야 겨우 잠자리를 찾았다. 중구이 머물던 세제를 치르고 나면 일어나 허리 핏을 섞인 말로『고생 시킬려는데 먼저 갖춰드렸습니다』며 이와는 생활을 헝그워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구집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 이런 것에 동네 사람들은 이서 중구가 출입해 좋은 직장 들어가야 행위에 퍼질 거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생각은 중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공부 하느라 힘들지야? 어제 지난번 보다 얼굴이 못짜?』

중구는 가슴이 끄끔하게 절어온다. 자신의 속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하시는 말 같았다.

『안나 다 원정 같기도 하다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잘 되어 뭘던니!』

취직이란 말 되기보다는 어머니 외증인에도 중구는 병 어리거나 험입니다.

『가뜩이나 인증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떨파끼리든지 아직 끄느 학교는 민소리 없어요? 어디 학과는 시험을 치내 맞히내 해서 애단이인디 말이다!』

『공부! 흥! 해야지. 하지만

세상이 날 그냥 놔두질 않았어!

어떤 놈이 통념새를 말고도

안난다고 할 수 있나?…

난 뚫을 치우겠다 이거야!

그것도 멋들어지게!』

교원임용고시를 놓고 떠들 하는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다. 그런 일 때문에 더 걱정이 되어 불어오는 거였다. 중구는 그때 막연하게『잘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근심 많은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덜어 주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담당한 심성을 떨어 놓았다는 그의 말에 두고보니 차라 말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멀끔하고 호흡을 기다들이 시도를 했지만, 입속에서 떨어졌다. 시끄러드는 것이었다.

결국 중구는 더 무기력해 점을 지고 학교로 들어왔다.

노서원 유상으로 오르려던 중구를 뒤에서 누군가 살피며 점을 끊어놓았다. 유월이었다. 그와는 입학해서부터 가깝게 지내는 동기였다. 중어리연합회에 속해 각종 행사들로 만나다니는 너석이다.

『행! 경민이 뭘지하게 찾던데, 만났어요?』

『아니, 나 지금 시장에서 물어온 걸까요?』

『시끌요? 시끌은…』

『용! 아버지 계사 때문에…』

『아! 그렇지!』

유월은 생각난듯 자기 머리를 푹 친다. 유월은 어려운나이 중구의 과거사를 알고 있었다.

『형! 그나저나 내일 경희 있다면서요?』

『응, 그린다!』

전의회 상실한 듯한 한 사람의 대모에도 솔 한잔하고는 손살같이 달려간다.

유상으로 오르려던 그는 경한에게 밀쳤을 들판였다.

『도대체 무슨 모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미안하게 됐다!』

『미안요? 저한테 미안하게 뭐있수?』

날카롭게 쓰아대는 경한은 중구의 속을 빡빡 긁어 낸

다. 어금니를 지긋이 물어엔 중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며, 최대한 자제해서 내일 친히 계획을 묻는다.

『개회요? 아예 손메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투로 자기 일에만 무관하다. 상중하기도 싫다는 그의 행동은 중구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았다는 데가 되게 했다.

『회기만!』

짧고 강한 호명 소리는 바빠 움직이는 경만을 마비정처럼 세워 놓았다.

『너 자식!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너가 어떻게 생각할 줄 좋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계절이 바뀌어 자연의 모습도 바뀐다는 것을. 하나 그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을.』

문을 박차고 나온 중구는 1리터 짜리 소주병을 사들고 육상을 유행하였다. 그리고는 벌써 마셔낸다.

마파김이 산란해져 불어대자 먹구름은 일찌개처 어둠을 물고 왔다.

여진껏 마셔온 술로 만취가 된 중구는 혼자서 주걸주걸 나불거린다. 그러다 빙자 치밀어 오르는게 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야! 다 나오라고 그래. 짜식들아! 누군 화근하게 달

빠—빠—빠~이.

9시 뉴클리스. 당초 열리기로 했던 Y대에서의 동부지역 사범대학 학생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무산된 김회에 불용한 일부 파티 학생들은 일시 장소를 임시로 옮기고 도서관을 점거한 채 이 시간 현재 장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있는 바쁜 현기자로부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바슬원 기자/

네. 밤 9시가 넘은 이시간 현재 대도서관 옥상에서는 20여명의 농성 학생들로…이들은 교원임용고시 치과와 카교우 실천을 위해 직접 문교부장관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한…이에 경찰은 도서관 주위에 투발을 설치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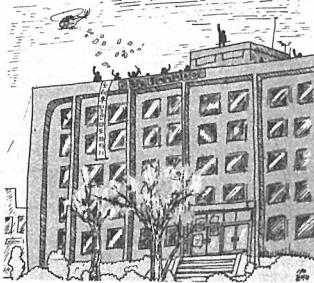
소방차와 앰뷸런스 등을 대기시켜 놓고…

바슬원 기자/ ~ 바슬원 기자/ 네. 송신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과 같은 불행한 시대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정부 단국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괴롭히고 체벌에서 침다운 민주 교육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스…

비온 뒤에 땅

좀더 깊은 고민이 담긴 글을 쓰고 싶다



입선소감

정도교
(사법·한교3)

첫눈이 오면 젖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하루에 한번씩 미네트비 등신을 오르내리다 보면 여기 저기에 께를 지어 먹이를 찾는 비둘기들이이다.

이 눈을 헤매는 외의도 일에, 그들은 젖을 알아낸다. 그들은 몰라 암마! 내가 먹봉! 하면 우리 엄마가 죽거든 난 젖은 되도록 살모사로 되기 쉽다. 이거야 새까? 뭐? 나보고 비행하고 치죽한 놈이라고? 좋다 이거야. 하지만 최경만 너 날 우습게 봤어, 짜식아!』

속이 활활 타올라 달달해 미친 지경인가 보다. 옷가지 를 줄 물과 안하는 걸 알? 나도 먹봉! 하고 싶다 이거야. 아니, 피파봉! 하려고. 이거야, 짜식들아! 하지만 난 말이야! 그건 싶지도 않아. 왜 그들은 젖을 알까? 그들은 몰라 암마! 내가 먹봉! 하면 우리 엄마가 죽거든 난 젖은 되도록 살모사로 되기 쉽다. 이거야 새까? 뭐? 나보고 비행하고 치죽한 놈이라고?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것도 더러운 꽁풀을 물들이어지게…』

마파김이 불어온다. 별도로 보이지 않는 어운 하늘에 분노의 불꽃이 빛나면서 번화한다. 하늘의 고함 소리 쟁이겨자 외쳐대고, 한 많은 설용은 벗을되어 폭마는 대지를 죽인다.

밤에 내리쬐던 빛줄기는 오후가 되어 이슬비로 변했다. 옥자립을 단단히 한 중구는 사흘 달라진 모습으로 책상 위에 앉는다. 괴성을 나가는 방식처럼 엄숙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펜을 드린다.

『경반!』

만약을 물어 몇자 써는다. 잠시나마 현실 앞에 나와해 진 내 모습을 떠나 미안하다. 매번 내린 비는 참 좋았다. 시간이 지나면 모른게 헹어져버린다. 다시 네 걸로로 들어올 수 있길 바라며…

『우상으로 가는 중구가…』

12년의 소설을 읽었다. 그중 그런대로 소설로서의 품을 갖춘 작품이 5편이었다. 당시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운동권을 찾았던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당시에는 그들이 찾았던 작품들이었다. 어제면 학생들이 부끄러워하는 당연한 귀걸로 보여졌다. 그들은 이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응하는 순결하고 저열한 삶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반주로 걸친 전개를 통한 소설로서의 감동이 약하고 상투성과 미숙성이 드러나 있었다.

『잠은 꿈을 위해 있는가,는 수기를 읽는 단조로움에 사

방하거나 빛나지도 않는 듯이 보인다. 다만 밤에는 누구는 두 인간의 저편에서 서 그들의 사랑 놀음에 쓰이진 제를 부스끼기 및 조각을 조각없이 주길 바란 편이다.

첫눈이 쌓으려 가야겠다.

마감 시간에 옷에 헛겨 저기저기 허리에 맞는 이슬로 물이 지면 빙이 맞선을 보게 됐다니 기분이 이를 드는다.

늘 편지와 해마다는 생각을 못내 멀리 버리지 못하고 있던 터에, 계으른 몸을 달래 어떤 방향을 찾았던가? 그것이 일이다. 이미도 이런 일은 오래도록 빛혀지지 않을 것이다. 첫눈과 함께 선물지고는 너무 벅차고, 같은 것은 것을 시도했던 다른 학생들에 솔구스런 마음을 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잘것 없는 꽂고리를 기꺼이 거두어 주신 시사와의 남자, 계으른에 채워진 진공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과원들은 비롯해 많은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여 글을 쓰고 싶다.

운동권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



심사평

김원일
(소설가)

당과 이별의 과정이 통속적이었다.『아이인기 3』은 노동아 다큐소설이나 현실적 소설로 대체로 처리한 논설부가 거슬렸던 절연의 맷집이 약했다.『이제는 다시 본 노동아워야 할 때』는 운동권을 적극 참여하거나 한 발 물리 서 있는 신영과 훈민·안나·한국의 사물을 이용으로 위어 소설 구성에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마지막 날은 작품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편성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역시 젖이 암고 거칠었다.『양심』은 운동권 주인공과 광주 학생에 대한 존경으로 청각했던 헤기 고리가 빛나고 편지, 일기로 개가 성을 있었다.

작은 작품들이『이느 기와한만한 하자(학자)』와『이』와『우』위에 끝난다.『정도교』이었다. 앞 작품은 주년 의 편원회 평생행동에 만남이란 성정이 기망하고, 우선 잘 읽힌다. 그만큼 전개가 철분하고 인물이 살아 있다. 대화의 제지 만큼은

